少年团

소년단

1955. 12

즐거운 설맞이 차비

동시

한해를 보내며

리 효 운

함박눈 포근히 나리는 밤—
탄광 마을 따스한 방안에서
맞이할 새해를 앞두고
한해를 돌이켜 보며 창'가에 섰다.

석탄을 떠나르는 삭도가
날개 돋힌듯 재빨리 가오는 창밖에
오늘도 밤낮 가리지 않고
증산 돌격에 나선 아버지와 형님들.

검푸른 산맥을 넘어
총총한 은하수 흘러 간
저 남쪽땅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은 원쑤에의 증오로 벅차누나…

오늘도 라디오가 전하는
남반부 소식—

인민의 것을 앗아 가고
귀중한 것을 짓밟고 있는
미국놈들과 리승만 역도놈들의 통치의 땅.

오늘도 찬바람 부는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동자 눈'동자로
인민의 원쑤들을 쏘아보며
남쪽땅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은 싸우겠지!

책도 없고 학교도 없이
헐벗고 굶주려도
우리의 어린 형제들은
김 일성 원수를 우러러 받들고
뜨거운 심장을 울렁거리며

해'발로 비치는 북반부를 향하여
우리의 손'길을 부르고 있겠지.

우리 조국 남쪽땅의 형제들도
영광스런 조국
통일되고 평화스런 땅에서 잘 살
게하기위하여
이 해에도 우리 부모 형님들이
일'손에 구슬땀 훔켜 쥐며
생각하고 일하고 싸워 왔구나!

슬기롭고 자랑찬 공화국 품 안
에서
김 일성 원수 령도하시는
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받들고

모든 것을 바쳐 모든 힘을 다해
사회주의 주추 돌을 쌓아 온
인민의
로력과 창조와 승리의 한해—.

반짝이는 탄맥을
착암기로 뚫어 내는 영웅 광부들
강철을 끓여 내는
로동의 영웅 따라
우리 아버지들이
한초 한분을 다툰 벅찬 한해.

폭포인양 쏟아지는
비료의 높은 산을 움직이며
푸짐히 낟알을 거두도록
농민들의 손목을 굳게 이끌고
우리의 형님들이
빛나는 길을 걸어 온 한해

영웅의 땅에 뿌리 박고
쪽빛 하늘에 솟아 오르는
크나큰 집들의 머리 우에

붉은 벽돌을 겹겹히 얹으며
경쟁의 나날을 쌓아 올린
기쁨과 희망찬 건설의 한해.

옥같은 물사품 흩어지는
물줄기 천리'길이
은 띠 처럼 느런히 굽이치는

가없는 고향 논벌에서
그 하루 하루를 조합에 바치며
튼튼한 삶의 새길 닦아온 한해.

저 창밖에 날마다 높아 가는
석탄의 뫼봉이 솟아 오르듯
나의 지식도 나의 희망도 나의 자랑도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이
자랐고 커왔고 여물어 왔고나!

한가지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잘 배워서
통일된 조국의 일'군이 되자.
아버지 어머니들이 쌓아 올린
아름답고 슬기로운 일을 도울
모든 준비는 되여 있는가?!

눈부신 태양이 솟아올 새해에
붉은 넥타이 단정히 매고
수령과 인민 앞에 맹세를 하자!
어떠한 힘든 일,어떤 곤난이 있드라도
용감하게 대담하게 이겨 나가며
지난해 보다도 더 잘 배우고 준비할 것을!

(1955·12)

태양을 따르는 꽃봉오리들

량강도 혜산 제1중학교 대 (인민반) 에서

신 진 균

우리 나라의 북쪽에 놓여 있는 도시 혜산은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 부대들이 왜놈들을 쳐부시며 싸우신 고장의 하나입니다

원수님 항일 유격부대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이곳 혜산에서 배우며 자라나는 기쁨을 지닌 혜산 제1 중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오래 전부터 수령의 혁명적 활동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올해에만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일 유격대 대원이였던 어른들을 모신 좌담회와 우등'불 모임을 가지고 원수님의 투쟁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수집한 자료들과 창작한 작품들로 훌륭한 전람회를 가지였습니다.

☆ 수령의 동상을 찾아

어느 일요일 날이였습니다. 4분단 벽보 주필 희남이는 수령의 략전 연구를 위해 만든 알범에 새로 얻은 항일 유격투쟁 시기 김 일성 원수와 소년회원들이 담화하는 그림을 정성껏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동무 태운이가 찾아 왔습니다. 방금 아버지에게서 보천보에 해방 투쟁 박물관 보천보 분관이 개관되였고 수령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온 그는 희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희남아. 보천보에 해방 투쟁 박물관 보천보 분관이 개관되였단다. 선생님과 의논하여 견학을 떠나기로 하자.

《참 좋은 생각이야,그럼 우리 선생님에게 의논하러 가자!》.

이리하여 희남이와 태운이는 소년단 지도원 김 석환 선생님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수령의 동상을 찾아 보천보 분관 견학을 떠날 데 대한 그들

의 제의는 지도원 선생님에게서도 찬성을 받게 되였습니다.

이튿날 대 위원회에서는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수령의 동상을 찾아 해방 투쟁 박물관 보천보 분관 견학을 떠나기로 의논되였습니다.

원수님의 투쟁 사적지 보천보에 개관된 이 분관에서 그들은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항일 유격 투쟁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리하여 대 벽보 주필 리 종철 동무를 중심으로 한 재간 있는 어린 화가들에게는 견학을 통하여 보천보 시가의 전경과 사적들을 스켓취하도록 하고 정태운 동무를 중심으로한 몇몇 동무들에게는 원수님의 투쟁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 위임되였습니다.

이들은 견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들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수집반에서는 보천보 전투에 참가하셨던 김 룡범 로인을 찾아가 미리 보천보 전투 이야기를 들었고 스켓취반 동무들은 캄파스를 비롯한 도구와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14일 드디여 견학대는 보천보에로 향해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취 원수님의 전투 사적들과 분관에 진렬된 전투 사판, 유화, 실물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왜놈들을 쳐부시고 조선 인민들에게 민족해방의 홰'불을 비쳐주려 이곳 보천보에로 진군하신 김 일성원수께서 전투를 앞두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시던 곤장덕이와 유격대들이 3개조로 나뉘여 3면으로부터 시가를 포위 습격해 들어가는 전투 사판은 그들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멈추게 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원수님의 동상 앞에 이른 그들은 당시 전투를 지휘하시던 원수님의 영명한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둘레의 화단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난 그들은 각기 스켓취와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리 종철 동무네 스켓취반은 원수님의 동상과 바로 유격대들이 밟고 내려온 오솔'길을 더듬어 유서 깊은 곤장덕에 올라가 그곳에서 내려다 본 시가 전경을 그렸으며 다시 내려와선 당시의 주재소와 영림서 등 사적 전물들을 스켓취했습니다.

그리고 정 태운 동무네 자료 수집반에서는 분관에 전시되여 있는 유격대의 진군 략도와 수령의 투쟁 년대표들을 복사하였습니다.

이 견학은 소년단원들에게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과 그 투쟁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 뜻 깊은 전람회

해방 투쟁 박물관 보천보 분관 견학대가 돌아오자 대 위원회는 다시 열성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각 분단에서 연구하며 수집한 자료들과 실물, 삽화들로서 수령의 활동을 연구하는 뜻 깊은 전람회를 가지자고 의논되였습니다.

이 전람회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수령의 략전을 연구하며 만든 알범들과 투쟁 자료들은 각 분단들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지만 전투 사판과 투쟁 삽화들은 어떻게 만들가!》하고 대 위원장 박 대의 동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투쟁 삽화는 우리에게 맡겨 다구》하고 종철이와 희남이가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어린 화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운물 싸움"에 대한 그림극도 그려본일이 있어 이

번에는 보다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투 사판을 만드는 것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초급반 동무들이 만들기로 의논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전람회 준비는 시작되였습니다. 각 분단들에서는 서로 경쟁하며 신문, 잡지, 화보들에서 원수님의 사진과 그림,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모아 보다 훌륭한 알범들을 만들었고 원수님의 활동을 주제로하는 각종 문예 작품들도 썼습니다.

투쟁 삽화를 그려가는 어린 화가들은 강 계덕 선생님의도움을 받아 부운물 싸움과 홍상'골 싸움에 대한 30여점의 련쇄 그림과 원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혁명적 활동 시기까지의 모습을 20여점의 삽화에 훌륭히 그려냈습니다.

한편 초급반 동무들은 공부의 짬을 타서 판을 짜고 진흙을 파다 지형을 만들며 학교에서 사다준 전지알로 전기장치까지 하여 훌륭한 사판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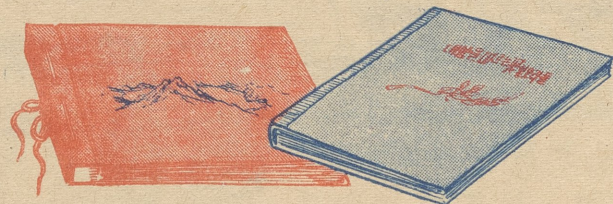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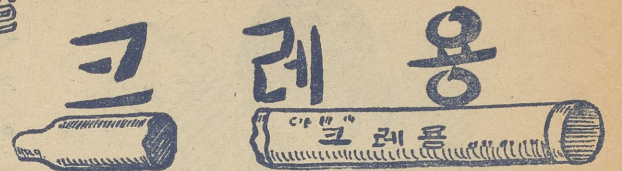
이리하여 한달 남아 준비한 전람회에는 원수님의 혁명적 활동과 투쟁에 대하여 그들이 한해 동안 연구한 종합된 자료들이 전시되였습니다.

첫 방에는 어린 시절의 김 일성 원수께서 만경대 봉우리의 소나무 우에 올라 무지개 잡이를 하시던 모습과 사랑하는 고향 아름다운 만경대에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든 모습 등 어린 시절의 김 일성 원수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였고 다음에는 수령의 유격 투쟁 모습을 나타낸 전투 사판과 련쇄 그림들 그리고 각 분단들에서 만든 20여책의 알범들과 《태양을 따르는 꽃봉오리들》을 비롯한 많은 문예 작품들이 나란히 진렬되였습니다.

이 뜻 깊은 전람회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지난 한해 동안 수령의 생애와 활동을 얼마나 훌륭하게 배워 왔으며 그를 위하여 얼마나 꾸준히 노력해 왔는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전람회에는 이웃 학교의 소년들과 그리고 학부형 어른들까지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전람회는 수령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소년단원들의 훌륭한 학교가 되였습니다.

소년소설

크레용

김 룡 익

조금 전부터 내리던 함박눈은 벌써 땅 우에 있는 모든 것을 온통 하얗게 들씌워 마치 흰 옷으로 곱게 단장한 것처럼 보이였습니다.

광수와 순남이는 빠드득 빠드득 소리나는 눈을 재미나게 밟으며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야, 광수야! 난 그림에 색칠까지 할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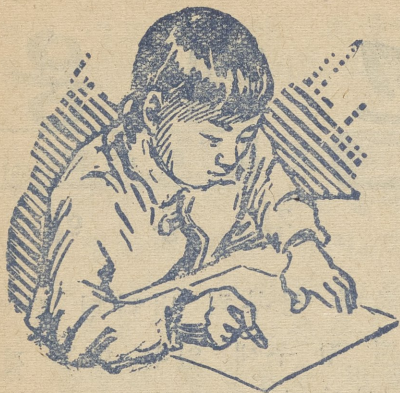
하고 순남이는 광수에게 뽐냅니다.

《너 크레용 있니?》.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꼭 사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뭐. 너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쓰자꾸나》

순남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체, 뽐내지 말아. 우리 누나도 오늘 사오겠다고 그랬어》.

그들은 래일 꼭 그림을 한장씩 그려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길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남이는 인민 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해 겨울에 자기 또

래들과 이 언덕길에서 눈사람도 만들며 또 얼음 지치기도 하며 놀던 생각이 떠올라

《얘, 우리 여기다 얼음판을 닦을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엇하려?》.

《얘두 참, 무엇하긴 무엇해. 얼음 지치기하며 놀지 뭐》 하고 광수를 쳐다 보며 말했습니다.

《길 바닥에서 얼음 지치기한단 말이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하고 광수가 툭 쏘아 주자

《싫으면 그만 두지. 사람들이야 길 옆으로 다니면 되지 뭐. 난 여기서 좀 놀다 갈테다》

하고 순남이는 집으로 가는 광수를 아니꼬운 듯이 흘겨 보다가 자기 혼자 언덕길 맨 꼭대기에서부터 얼음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이 시린 줄도 모르고 눈 덩이를 척척 옮겨놓고는 발로 꽁꽁 밟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빨리 가서 누구보다도 그림을 잘 그리겠다던 생각은 잊어버린 모양이지요. 이때 자기 또래들이 두 셋이 와서 같이 닦아서 얼음판은 제법 반들반들 해졌습니다.

순남이는 한번 꼭대기에서 내리 지쳐 보았습니다. 잘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야! 멋지게 내려 간다》.

순남이는 참으로 재미가 났습니다. 그들은 팔로 서로 허리를 붙잡아 마치 기차 모양을 하고 지쳐 내려가군 했습니다.

순남이는 한 동안 자기 동무들과 재미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래일은 저 밑에까지 닦을테다!)

하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순남이는 집에 돌아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필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아버지에게 부탁한 크레용이 생각났습니다.

《잊지 않고 꼭 사오면 좋겠네!》.

순남이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빨리 돌아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밖은 어둑어둑해 가고 방 안은 전등'불이 밝아 왔습니다. 순남이는 어머니가 저녁을

먹자는 것도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먹겠다고 하면서 《우리말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지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순남이는 너무 좋아서

《아버지! 크레용 사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 오구 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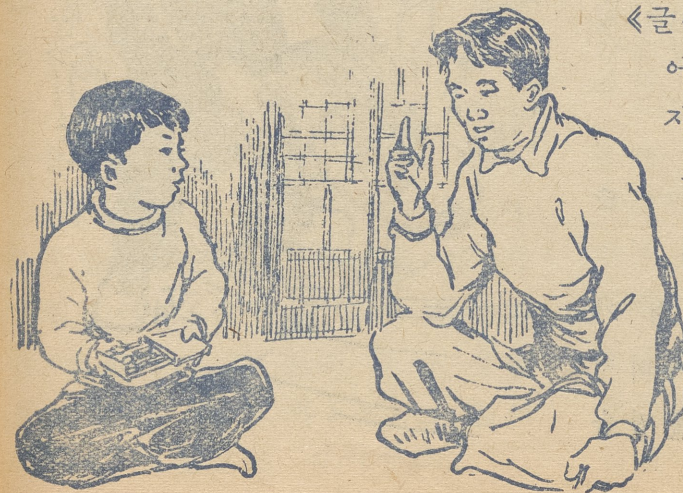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방으로 들어 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좋아! 얼른 주세요》.

《애두 참 급하기두》

하고 말하며 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크레용곽을 꺼내 주었습니다. 순남이는 얼른 받아가지고 뚜껑을 연 다음 가지가지 고운 색갈들을 손'가락으로 세여 보다가 그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이것 봐요》.

순남이는 아버지 앞에 다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엇 말이냐?》.

《크레용이 다 부러졌어. 엥이》

순남이는 그만 울'상이 되였습니다.

《뭐, 부러졌다구?》.

아버지는 순남이의 손에서 크레용곽을 받아 보니 과연 여러개나 또막또막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히 생각하시다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몰라요, 난……》.

순남이는 입에 손'가락을 물고 뾰르퉁해졌습니다.

《애두. 어찌겠니. 할 수 없지》하고 잠시 말을 그쳤다가 다시 이어 《어떤 애가 했는지 그앤 참 나쁜애야》하고 혼자'말처럼 하시였습니다.

《누가 말이예요. 누가 내 크레용을 꺾었어요?》.

순남이는 분한 김에 씩씩거렸습니다.

《글쎄 내야 알겠니. 사방이 어둑어둑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더구나. 그래 언덕길을 조심조심 내려 오다가 그만 넘어졌지. 그때 아마 크레용이 부러진게구나 애들이 언덕길에 얼음판을 만든 줄이야 알았나》

하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여 물고 나서

《내 무릎도 상했는지 모르겠다. 자꾸 아파 오더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순남이의 얼굴은 갑자기 익은 사과알처럼 빨개지며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우리 순남이는 그러지 않겠지?》하고 아버지는 순남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남이는 더욱 가슴이 뜨끔뜨끔해 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순남이의 얼굴은 점점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숨 소리도 가늘게 내며 조그마한 손'가락으로 부러진 크레용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순남이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크레용 부러졌다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 ×

그 이튿날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헌 바께쯔에 석탄재를 담아 가지고 언덕길로 가는 순남이를 보았습니다.

(어제 밤엔 말이 없더니… 순남이가 장난한게로구나…)

언덕길에 석탄재를 뿌리러 가는 순남이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 올랐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동무들

황남 연안군 연안 인민 학교
대 위원장 황 남 익

9월 3일 둘째 시간은 국어 시간이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거듭 읽었습니다. 모두들 읽기가 익어져서 제법 시를 읊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몇 학생이 일어나서 읽어보기로 되였지요. 선생님은 림 철웅 동무를 지명했습니다.

림 철웅 동무는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하고 제목은 막힘 없이 읽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떠둑떠둑 한 자씩 붙여 읽었습니다. 마치 1학년생이 처음 배운 글을 읽는 것 같았지요.

《광흠이는 잘 읽겠지》하시며 선생님은 박 광흠 동무를 또 지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선생님은 광흠이가 잘 읽지 못한 것을 보고 다음 배울 과목도 잘 읽어 오라고 타일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생각과는 달리 박 광흠 동무도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읽기를 더욱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읽기를 잘 못하고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이윽고 종이 울리자 선생님은 나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 국어 학습을 잘 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게까지 될가…》.

분단 열성자들은 분단의 국어 성적이 낮은 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날 공부가 끝나자 분단 위원장 리 상옥 동무는 분단 열성자들과 의논해 보았습니다. 리 상옥 동무는 적지 않은 분단 동무들이 국어'과의 읽기 과제는 선생님의 검열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

니라 과외 독서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였지요.

그리하여 리 상옥 동무는 어린 독서가 모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이 모임은 분단 동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붙이며 국어'과 학습을 돕자는 것이지요. 분단 열성자들은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도 《바삐 서둘지 말고 날'자를 넉넉히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찬성하시였습니다.

다음 날, 분단 동무들에게는 9월 2?일에 어린 독서가 모임을 가진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림 철웅, 박 광흠 동무에게도 국어'과 복습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들의 독서력을 키워주기위하여 어린 독서가 모임에 나가 독서 발표를 할 것이 위임되였습니다. 이를 김 명자 동무가 도와 주게 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공부하는 틈틈이 어린 독서가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지요.

소년단 도서실에서는 시 랑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요 동시집을 읽는 동무들, 동화, 옛이야기, 우화, 소설 등 읽은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는 동무들, 또 새로 나오는 《소년단》 잡지와 《소년 신문》을 기다려 읽는 동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림 철웅 동무는 《흥, 내가 독서를 잘 안하는 줄 아는게지, 나보구 독서 발표를 하라고…》하며 마땅치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이 열심히 독서할 때 그는 예나 다름 없이 고기 잡이만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군 했지요. 박 광흠 동무도 역시 분단 열성자들의 충고를 들은둥 만둥 독서에는 마음을 안두고 장난을 놀다가는 싸움까지 하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단 열성자들과 김 명자 동무는 그들을 타일러 주었습니다.

김 명자 동무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하겠는가를 생각하 군 했습니다. 김 명자 동무의 머리에는 자기

가 처음 그림책을 보던 때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애들도 그림책은 좋아할 게야…》.

이렇게 생각한 김 명자 동무는 하루 공부가 끝나자 그들에게 소년단 도서실에 가서 새 그림 책을 보자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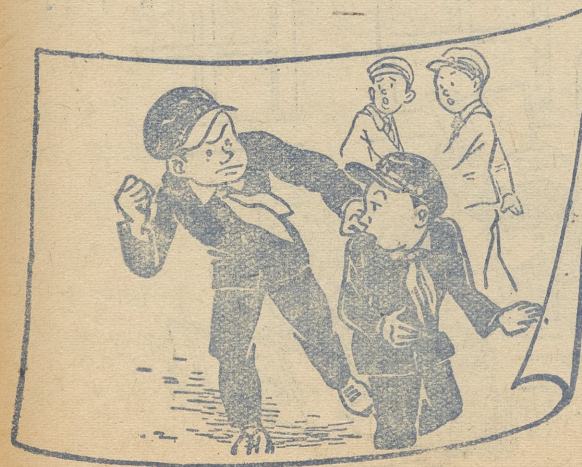
《림 철웅 동무와 박 광흠 동무는 친절한 명자 동무를 따라 도서실로 갔습니다.

김 명자 동무는 동화시집 《매미와 개미》를 꺼내다 주며 그들에게 물었지요.

《매미하구 개미, 어느 것이 좋니…》.

《매미가 좋지 뭐. 노래두 잘 하구》하고 먼저 광흠 동무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난 개미가 좋을것 같은데…》 하고 철웅 동무는 자신 없이 대답했지요.

《자, 누가 맞혔는가 보자》하

고 광흠 동무가 재촉했습니다.

그리하여 광흠 동무와 철웅 동무는 둘이서 동화시집 《매미와 개미》를 보게 되였지요.

처음은 그림을 흥미있게 번져 보았습니다. 그림만 보고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지요. 종내 그들은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어 서로 도와 가며 동화시를 읽어 내려 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개미가 좋아!》하고 알아낸 듯이 광흠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것 봐》하고 철웅 동무는 자기가 맞힌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때 김 명자 동무는 웃으며 말했지요. 《책을 읽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책은 무엇이나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동무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어리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던 것을 책에서 알아내게 된 기쁨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분단 동무들은 이 두 동무들이 도서실에서 책 읽은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림 철웅 동무와 박 광흠 동무는 그 후《백두산》시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라는 대목을 찾아 내여 기

빠하며 그 앞뒤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독서가 모임의 위임을 자기들에게 준 것이 자기들을 공부 못한다고 골려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단 벽보 주필 곽 청자 동무는 《책을 사랑하는 두 동무》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림 철웅, 박 광흠 동무들은 전에처럼 고기 잡이와 장난만 치지 않고 읽은 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책 가운데 나오는 훌륭한 소년을 본받으려고 애쓰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제1분단의 어린 독서가 모임 준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습니다.

기다리던 9월 29일, 어린 독서가 모임의 날은 왔습니다.

모임 장소인 소년단실은 여러가지 화분과 가을꽃들을 꺾어다 꽂은 꽃병으로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습니다.

모임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분단 지도원 선생님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김 용명, 송 신자, 김 명자 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이 시 랑송, 읽은 책 이야기, 동화 구연 등을 하였습니다.

박 광흠, 림 철웅 동무도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를 외워가지고 훌륭히 랑송하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교장 선생님은 이들이 인젠 장난에만 휩쓸리지 않고 규률을 잘 지키며 학습을 잘 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된데 대하여 칭찬하시였습니다.

이때부터 제1분단 동무들의 국어 학습은 물론 분단 생활도 잘 되여 갔습니다.

소년단 도서실이나 군 도서관에서 책 읽는 소년단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후 1분단 동무들이 읽은 책만 해도 119권이나 됩니다.

제1학기를 1분단 동무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락후하던 국어 성적은 5점 31명, 4점 13명으로 좋아졌고 림 철웅, 박 광흠 동무도 4점을 받았지요.

이것은 1분단의 자랑이며 우리 학교대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헌 겊

느 · 노 쏘 브

보브까에게는 멋진 즈봉이 하나 있었습니다. 푸른 색이였는데 더 바르게 말하면 보위색 즈봉이였습니다. 보브까는 이 즈봉을 입고 몹시 뽐냈습니다. 그것을 척 입고서는 마치 진짜 군대처럼 모양을 내군 했지요.

그런데 한번은 보브까가 담장을 기여 넘다가 그만 못에 걸려 이 멋진 즈봉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너무 분해서 울음까지 터뜨릴번했답니다. 보브까는 집으로 돌아 와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기워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이 나서

《담장에 기여 오르다가 제가 즈봉밑을 찢어 놓군, 나보구 기워 달라구 그래》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그래요… 한번만 기워 주세요. 네…》.

《제손으로 기워라》.

《난. 기울 줄 몰라요》.

《찢을 줄 아니까 기울 줄두 알겠구나!》.

《그럼. 난 이대루 나가 다닐테야!》.

보브까는 중얼거리면서 그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린 애들은 보브까의 즈봉 밑에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고 웃으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즈봉 밑이 다 뚫어진게 네가 무슨 군대니!》.

그러나 보브까는 마주 대'구했습니다.

《엄마보구 기워 달래니까 안 기워 주는데 뭐》.

《군대 양복을 왜 엄마가 기워 주겠니? 군대는 모든 걸 제손

으로 하는거야. 궤진 데두 깁구 단추두 달구》.

보브까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 와 어머니에게 바늘과 실과 푸른 헌겊 조박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브까는 헌겊 조박을 길죽하게 오려내가지고 즈봉에 대고 깁기 시작했습니다. 보브까는 몹시 덤비면서 세번이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보브까는

《이놈의 바늘, 넌 왜 찌르니 나뿐 놈 같으니!》하고 바늘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헌겊 조박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기운 헌겊 조박은 마치 마른 버섯 종이처럼 즈봉에서 툭 두드러져 나오고 기운 자리는 구김'살이 갔습니다.

《야, 이게 왜 이 모양일가? 그래두 안기운 것보다는 낫지. 좋아. 그럼 고쳐 기워 볼가》하고 보브까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칼을 쥐고 헌겊을 다시 뜯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겊을 잘 펼쳐 가지고 다시 즈봉에다 대고 검은 연필로 헌겊 주위에 선을 뺑 둘러 긋고 다시 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덤비지 않고 차근차근 헌겊이 선에서 삐여져 나오지 않게 조심히 기웠습니다.

보브까는 씩씩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일했습니다. 다 기워 놓고 보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운 헌겊은 고르게 매끈하고, 이'발로도 뜯을 수 없으리만큼 튼튼히 기워졌습니다.

보브까는 즈봉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애들이 또 그를 둘러쌌습니다.

《야 멋있는데!》 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운 헌겊을 좀 봐. 연필로 줄을 그었어야. 얘, 네가 기운게로구나》.

보브까는 모든 어린애들이 다 볼가봐 부끄러워서 기운데를 감추느라고 사방으로 빙빙 돌아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단추 다는 법이래두 배워 둘걸. 에이 분한데. 이제부턴 한군데두 궤뜨리지 않을테야! 그래두 괜찮아. 아무 때건 궤뜨리면 꼭 내가 기울테니까》.

(김 원 필 역)

봉심이의 이야기

——공화국 남반부의 한 소년 이야기——

박 우 설

새벽이였습니다.

하늘을 찌는듯한 요란한 비행기 소리에 봉심은 솟으라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목에서 몇줌되지 않는 보리쌀을 앞에 놓고 한숨을 푹푹 지으며 앓아누워계신 아버지가

《왜 또 새벽 부터 지랄인고, 자식들!

전번엔 땅크들이 논밭을 짓이겨 놓드니 오늘은 하늘에서 지랄이군》

하며 화가 난듯 혼자서 투덜거렸습니다. 별안간 쏴—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막 흔들거렸습니다. 미군 쌕쌔기들이 내려 꽂치는 련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검은 구레나루 수염이 더부룩하고 광대뼈가 유달리 돋으라진 봉심의 아버지 얼굴에 어떤 불길한 기색이 떠돌았습니다.

봉심이도 갑자기 아버지 곁에다가 앉으며

《아버지 밖으로 나가요. 난 무서워! 저놈들이 폭탄이라도 떨구면 어떻게》 하며 가슴을 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여윈 봉심을 품속에 안아 주었습니다.

가을이 닥쳐오자 옥내'골 부근엔 자주 미군 땅크들이 나타나서는 련습을 한다고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밭을 짓이겨 놓군 하였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새 전쟁을 준비하노라고 미친듯이 날치였습니다. 그저 이래도 못살고 저래도 못사는 건 농민들 뿐이였습니다.

이날은 바로 미군 비행기들의 공중전과 폭격 연습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보! 밈을 쒀 놨수다. 그럼 내 친정에 보리 종자 얻으려고 가우》

잔 주름'살이 간 병색이 가시

여지지 않은 여윈 얼굴에 희숙희숙 흰 머리칼이 보이는 어머니가 사이'문을 열고 하는 말이였습니다.

《어느 세월이라고 종자를 여분이 두고 있겠다구 얻으려 가우?》.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아 보지도 않은채 한숨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제 더 살아 나갈 길이 없으니 차라리 거리로 나가 막 벌이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을 보리를 심자고 해도 어디 종자가 있어야지요. 당장 겨울 고비를 넘을 량식도 없었습니다.

벌써 이 마을에서도 많은 집들이 살다 못해 정든 땅을 등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봉심이네는 어떻게 서라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 내가 갔다 올래요! 어머닌 앓다가 방금 일어 났는데!》

하며 아버지의 품에서 튕겨나듯 뛰여나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봉심아, 봉심아》.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않고 봉심이는 달리듯 외가'집으로 가는 언덕길로 줄달음 쳤습니다.

외 할머니는 새벽길을 떠나온 봉심에게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얼마 안된는 보리 종자를 박박 긁어 모아 봉심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심이네를 산 설고 물 설은 타 고장에 떠내 보내기가 걱정되였기 때문입니다.

두 되 남짓한 보리 종자를 얻어든 봉심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봉심은 비록 열한 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만 해도 월사금이랑 그밖의 숱한 돈을 바치지 못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도 봉심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보리 종자를 넣은 조그만 자루를 귀중히 품에 안은 봉심이는 다리 아픈것도 모르고 옥내'골로 총총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봉심이의 머리 속에는 보리 종자를 받아들고 기뻐하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봉심이는 얼마나 서둘어 걸었던지 보래산 기슭 참대 숲에서 짖어귀는 방울새의 아름다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심이가 옥내'골 언덕을 방금 올라섰을 때입니다.

별안간 미군 쌕쌔기 한대가 기웃둥거리며 내려 꽂치더니

《꽝!》

하는 요란한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동리 한판에서 물쐰 불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앗!》

봉심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놀랜 소리를 질렀습니다.

쌕쌔기가 던진 폭탄이 자기네 집에 명중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봉심은 어떻게 언덕길을 달려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먼지가 뽀얗게 떠 풍기고 있는 자기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봉심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놈들의 폭탄에 무참히 쓰러졌고 어머니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봉심은 울부짖으며 어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윽고 밭에 나왔던 동리 어른들이 일하다 말고 모두 달려왔습니다.

미군놈 들은 《대지 공격》이라 하여 이런 짐승같은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개같은 놈들!》.

동리 사람들은 모두 주먹을 부르쥐고 아직도 상공에서 무리지어 날치는 미군 비행기들을 원한과 분노에 찬 눈으로 쏘아 보고들 있었습니다.

애타게 우는 봉심을 옆집 아주머니가 부축해 일궈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봉심아 울지 말아! 미군놈들은 우리가 운다면 좋아할게다! 우리의 울음을 두었다 저놈들에게 돌려 주자!》.

그말에 봉심은 뚝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는 품에 안은 보리 자루에서 보리쌀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고 분노에 찬 얼굴로 하늘을 노려보며 조용히 그러면서도 힘있게 웨쳤습니다.

《이놈들아 나는 울지 않겠다. 난 네놈들에게 이 원쑤를 갚고야 말테다!》.

붉은 넥타이를 매는 기쁨

황해남도 재령군 봉천 인민 학교 제2학년의 우등 최우등생 들인 리 현일, 최 순경, 림 정자, 김 춘자, 기 춘호,홍 경숙, 안 영희,기 순호,리 현조 동무들은 얼마전 입단 서약식에서 영예로운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이들은 항상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하루의 결석도 없이 꾸준히 공부하여 왔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지난1학기에도 모두 우등, 최우등을 하였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앞가슴에 자랑찬 소년단 휘장을 달고 붉은 넥타이를 매였지요.

지금 이들은 앞으로 더욱 공부 잘하여 오늘의 이 영예를 빛내자고 결심합니다.

좋 은 일

우리 분단 제2반 동무들이 학교로 다니는 길에는 큰 돌이 군데 군데에 놓여 있고 여름 장마때에 움푹하게 패여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짐 실은 달구지와어린 동생들이 다니기에 아주불편했답니다.

2반 반장인 리 윤원 동무는 눈이 많이 오면 1.2학년 어린동무들이 이 길을 다니기에 더욱 불편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모들의 손을 빌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을 닦는 것이 어때?》하고 반원들에게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에 반 동무들은 모두 《참 좋은 생각이야》하고 찬성했습니다. 곧일에 착수했습니다.

2반 동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삽을 들고 나와 마을 앞길에서 부터 학교 가는 길을 닦기 시작했지요.

큰 돌은 길 옆에 치우고 움푹한 곳에는 흙을 메워 고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눈이 온 지금 마을의 달구지들과 우리들의 동생들은 마음 놓고 이 길로 다닐 수있게 되였지요.

황북도 서흥군 가창 인민 학교 대
통신원 리 의 영

도서실의 책은 늘어가요

지금 우리학교 도서실에는 많은 책들이 날마다 소년단원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힘으로 마련된 것도 많답니다.

지난 달에도 우리 학교대에서는 림목 종자와 파지를 모아서 얻은 돈으로 새책들을 학교의 도서실에 장만하였고 얼마전에는 가래씨를 따다가 판돈으로 25권의 새책을 또 새로 더 장만했지요.

이처럼 재미 있는 책으로 가득찬 우리 학교 도서실에는 날마다 어린 문학가들이 《아동 혁명단》《백두산》《도끼 장군》《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등 책 읽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리하여 매달 두번씩 가지는 읽은 책 이야기 모임에서는 제가끔 자기가 읽은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평남 회창군 회운 인민 학교대
통신원 오 상 렬

새로 만든 실험 기구

우리 학교 제3분단 동무들은 배운 지식을 더 넓고 깊게 하기 위하여 실험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들은 선생님의 지도 밑에 24종의 실험 기구를 만들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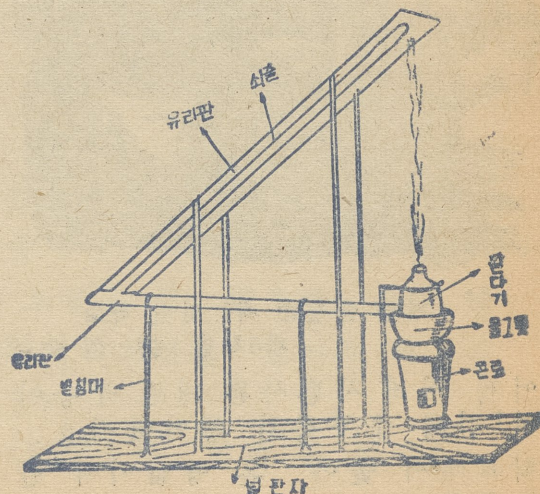
이번 달에도 우리들은 자연' 과에서 배운 물의 순환을 실험하기 위하여 《물의 순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에 열을 가하여 오르는 증기가 유리판에 부디쳐 물방울이 되여 다시 물그릇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들의 학습을 도와 주었지요.

강원도 김화군 창도 인민 학교대
통신원 박 명 화

동요

첫 눈

룡정 초등 학원
오 춘 석

네 머리 우에도 내 머리 우에도
펄펄 첫눈이 내려요.
일년만에 오는 첫눈
우리들은 좋아라고 맞아 드리죠

찬바람 헤치며 줄달음 치며
일년만에 오는 첫눈 반갑기도
하지요.

× ×

첫눈아, 첫눈아,
일년만에 오는 그리운 동무야.
날마다 씩씩하게 배우며 뛰노는
꽃봉오리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
듬어주며
산에 들에 언덕에 사뿐사뿐 내
려라.

동요

평남 순천군 제1 인민 학교
제5학년 송 성 숙

어제 저녁 사뿐사뿐 내린 눈송이
길'가에 수두룩히 쌓이였지요.
학교에서 돌아 온 영남이와 반
동무들
모두 모두 떼굴떼굴 눈 사람 만
들지.

한번 두번 굴려서 만든 눈덩이
삽시간에 사람모양 되여가지요.

머리에는 조롱박 철갑을 쓰고
어깨에는 나무판 견장을 달고
가슴에는 금별의 훈장을 단
영웅 형님 모습을 영남이는 만
들죠.

초소에 선 형님이 우리 보고 타
이르지요.
학습에서 단 생활에서 모범 되
라고—
나도 나도 어서 커 형님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 지키겠다오

(1)

어느 따뜻한 봄날이였습니다. 배가 출출 곯은 여우 한마리가 산 꼭대기 벼랑 우에 올라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을 골려 먹을가》하고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2)

좋은 수를 생각해 낸 여우는 다람쥐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아이구 언제 봐두 귀엽지! 다람쥐 아씨, 오늘이 우리 딸 잔치니 모두 다 꼭 와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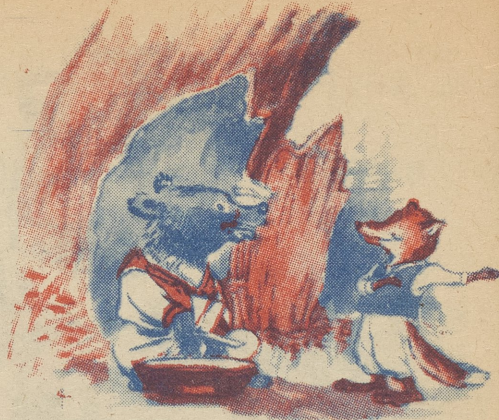
(3)

다음은 고슴도치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저 늘상 부지런하지 오늘은 좀 쉬우다, 우리 딸 잔치니 차린건 없어두 와 주게!》.

《고맙수다. 이제 곧 가지요》.

(4)

다음은 토끼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아주머니 뭘하우? 이 좋은 날 낮잠이라니… 오늘 우리 딸 잔치니 꼭 와주우》. 《반갑기는 합니다만 어린 것들 때문에…》. 《아이구 다 데리구 오셔야지요!》.

(5)

다음은 곰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요샌 지내기가 어떠시우? 봄철이면 늘 궁굼하신데 우리 딸 잔치에나 오시지요》. 《거 참 고마운 일이로군!》

(6)

다람쥐네도 고숨도치네도 토끼네도 그리고 곰네도 모두 어린 것들을 데리고 줄렁줄렁 건넌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우는 해해 웃으며 《그러면 그렇겠지. 미련한 것들》하고 좋아했습니다.

(7)

주인들이 없는 사이에 여우는 이집 저집 돌아 다니면서 먹을 것을 배껏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루에다 가득 넣어 가지고 까지 왔습니다.

(8)

건넌산에 가서 헤매던 짐승들은 그제야 속은 줄을 알고 모두들 분해하였습니다 《아얘 떨지근하더라니까…》. 《거 참 깜빡 속았는걸…》. 《그놈한테 다시야 속을 수 없지…》.

(9)

며칠 후에 여우는 또 다른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는 산꼭대기로 부터 뛰여 나려 오며 《불이야! 불이야! 산' 불이 내려 온다!》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10)

《또 누구를 속일려는군! 인젠 안되지 안돼!》. 다람쥐도 고숨도치도 토끼도 까딱 안하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산'불이면 어떻거나? 산'불이면 꺼야지》. 곰의 말에 또 모두들 떨어 나섰습니다.

(11)

다람쥐는 피리에다 물을 묻혀 가지고 고숨도치는 불피쟁이를 들고 토끼는 물통을 메고 곰은 큼직한 몽둥이를 들고 모두 다 서둘러 산곡대기로 향했습니다.

(12)

《흥 그러면 그렇겠지 괴쟁인 꾀로 살게 마련이야》 여우는 이집 저집 드나들면서 또 한바탕 노략질을 해 갔습니다.

《거봐요. 아주버니 때문에 또 술한걸 잃었지요》. 《고녀석 만나면 다릴 꺾어 놀테다》. 곰도 분통을 터쳤습니다.

(13)

어느날 여우는 또 산꼭대기에 올라 앉어서 궁리했습니다. 《이번엔 범이 내린다구 할가, 승냥이가 온다구 할가?…그래 범이 내린다구 하는게 더 좋지 해해해……》.

(14)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으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힐끔 돌아다 보니 정말 범이 달려 드는 것입니다. 여우는 얼혼이 나서 뛰쳐 내려오며 《나 좀 살류! 범이야!》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15)

여우가 제아무리 소래기를 질렀으나 그에게 여러번 속은 짐승들은 아무도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여 문들을 꼭꼭 닫아 매였습니다.

(16)

여우의 걸음은 범의 걸음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있던 꾀도 소용이 없었지요. 드디여 여우는 범에게 물려 가고 말았습니다.

유희 동요

설맞이 노래

리 원 우 시
김 혁 곡

설 맞이 온 동무들아
어느 길로 걸어 왔나?
원수님 닦아 주신 배움의길로
한달 두달 열두 달
활개치며 걸어 왔지

금별 열린 소나무에
열두 색줄 늘여 잡고
꽃봉오리 설맞이 춤
두리 둥둥 추어 보자.

설맞이 온 동무들아
뭘가지고 모두 왔나
한해 동안 배운 열매 따 가지고
웃음꽃도 한다발씩
아름아름 안고왔지

설맞이 소나무에
열두 색줄 늘여잡고
가면쓰고 설맞이 춤
두리 둥둥 추어 보자

설날 맞은 동무들아
무슨 선물 받았느냐
얼른 자라 꽃동산 꾸밀 맘으로
새 나이 한살씩
설날 한테 받았지

새'별 열린 소나무에
열두 색줄 늘여잡고
희망의 설 맞이 춤
두리 둥둥 추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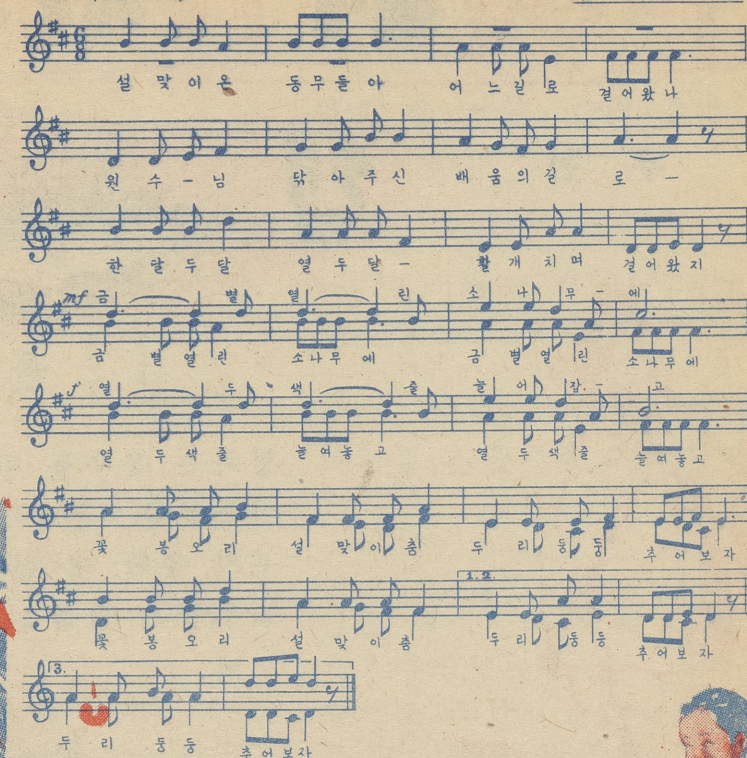
☆노는 법☆

장식한 설맞이 소나무에 열두 색줄을 원형이 되게 길게 늘이고 그 한가닥씩을 잡고 열두 소년 소녀가 춤을 춘다. 줄을 잡지 않은 열두명과 마주 서서 줄을 받거니 주거니 하며 소나무를 빙빙 돌며 춤출때 군중들은 노래 부른다.

여러가지 글

우화

지 을 주

가마득한 먼 옛날
고개 고개 넘고 넘어
깊은 숲 속에
졸졸졸 샘물 흘러
내렸네.

고개 고개 넘고 넘어
오가는 길에

일하는 농부들 한 모금 추기면
선들선들 구슬땀 거둬 들이고
부쩍 부쩍 새 힘 솟아 오르니
농부들은 샘물을 약수라 자랑했
네.

마을에서 이름난 게으름뱅이
이말 듣고 어느날 길 떠났네.
샘물 마셔 보러 길 떠났네.

샘물터로 찾아온 게으름뱅이
꿀꺽꿀꺽 샘물 켜다
이마' 살 찌프리고 입을 가시며
물맛 없다고 퇴 퇴 퇴.
속아 넘었다고 투덜 투덜.

《이따위 샘물 없애 버려야지!》
돌맹이 흙덩이 주어 모아
샘물터에 마구 마구 쳐 넣었네.

씩씩거리며 비지땀 흘리며
샘물 메우느라 목구멍 말랐어도
가까이엔 한 모금 물도 없었네.

졸졸졸 샘물은 흘러 흘러
흙탕물 지우고 또다시 맑아졌네.

마른 목 추기자니 하는수 없어
게으름뱅인 약 먹듯 눈 감고
꿀꺽
샘물 한 모금 다시 한번 마시
더니

《아이 시원도 해! 참 약수야!》
탐스럽게 마시고 또 마시며
……………………

《이런 약수가 아까는 왜……!》
머리를 기울기울 큰 조화라는듯.

………………

일은 싫어하고 땀을 모르는
게으름뱅이에겐
참으로 모를
큰 조화기도 하지!

겨울이 되면 나는 소년단원들의 친한 벗이 되지요.

나는 추워하는 그들을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워 주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눈이 오는 아침이였답니다. 나는 빨갛게 단 몸으로 추워하며 교실에 들어 오는 소년단원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지요.

그런데 점점 내 주위에는 많은 소년단원들이 모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교실 당번인 성용 동무는 내 입이 터지도록 나무를 쓸어 넣어 불'길은 확확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은 서로 더 많이 쬐이려고 밀며 당기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빨갛게 단 내 몸에 누가 넘어질 것만 같아서 나는 참으로 걱정스러웠지요.

《빨리 선생님이 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종소리와 함께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빨갛게 단 나를 바라 보시더니 이마'살을 지으시며 《우리들은 화목을 아낍시다. 그러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 조심을 해야겠어요》하고 타이르셨답니다.

이리하여 나는 마음을 놓게 되였지요. 소년단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했을 테니까요.

함북 연사군 제2 인민 학교

통신원 김 창 성

《소년단》 편집부는 금년도 한해 동안에 어린 독자들로부터 보내온 500여건의 문예 작품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동무들 가운데서도 평남 대동군 만경대 인민 학교 문 혜정, 평양 사범 전문 부속 인민 학교 정 룡순, 황북 연산 제2 중학교(인민반) 봉명자, 함남 북청 제1 인민 학교 렴 성극 동무들이 제일 열성스럽게 투고해 왔습니다.

올해에 동무들이 보낸 작품 가운데는 지난 해 보다 《작문》이 퍽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퍽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 문학가 여러 동무들은 아직 동요, 동시, 소설은 짓기 어렵지만 작문은 쉽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작문을 잘 짓는 것은 앞으로 좋은 작품을 잘 지을 수 있는 첫째 가는 공부가 되기 때문이지요.

함흥 제1 인민 학교 김 영작 동무의 《반가운 편지》 홍남 제3 인민 학교 리 광익 동무의 《행복한 우리집》 등은 잘 된 작문들이였습니다.

김 영작 동무는 쏘련 삐오네르 미샤에게서 친선의 편지를 받은 기쁜 마음을 잘 나타내였고 리 광익 동무는 날마다 행복한 웃음이 꽃피여가는 자기 집에서의 즐거운 이모저모를 잘 그렸습니다.

그러나 작문을 짓는데서 아직 많은 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내용을 담는다고 하여 어려운 말로 억지로 꾸미려는 것입니다. 억지

로 꾸미는 작문에는 언제나 동무들의 명랑하고 활발하고 씩씩한 생활이 잘 담겨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작문은 너무 짧게 꾸몄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을 놓쳐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연산 제2 중학교(인민반) 봉명자 동무의 《반가운 소식》은 고국으로 돌아간 지원군 오유경 아저씨의 편지를 받은 이야기를 썼는데 아저씨가 조선에 있을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으며 아저씨가 조선 인민을 도와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 기쁘다고 했지만 읽는 사람은 그런 느낌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작문을 지을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작품은 동요와 동시입니다.

그 중에는 개천 초등 학원 리 용흡 동무의 《아침 체조》 무산군온천 인민 학교 리 기영 동무의 《부러운 형님》 장연군 명천 인민 학교 리 종곤 동무의 《표마 공장》 그리고 북청 제1 인민 학교 렴 성극 동무의 《종이 매》 퇴조군 련봉 인민 학교 박 술자 동무의 《봄아 봄아 오너라》 등 작품들은 잘 된 작품들입니다.

렴 성극 동무는

《매 매 종이 매
제비 비행기 처럼
씽씽 나는
나의 종이 매

우리 분단 동무들과
경쟁 할 때는
제비 비행기처럼
재빨리 날지요》.

하고 노래한 《종이 매》에서 자기가 만든 종이매를 마치 제비 비행기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였고

박 술자 동무는

《봄아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솔솔 부는 봄바람에 머리까락 날리며
재미나게 공부하게 어서 어서 오너라》

하고 봄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동요 동시들이

첫째로는 상을 잡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써 나가는 것,

둘째로는 짧은 구절 속에 여러가지 많은 내용을 억지로 넣으려는 것,

세째로는 글자만 맞추려는 것

네째로는 남의 것을 꼭같이 본 따려는 것 등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봄을 주제로 한 련봉 인민 학교 김 기영 동무의 동요는

《새 봄이 왔지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오지요.
먼 산에 아지랑이 아물거리지요.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싹 돋아 나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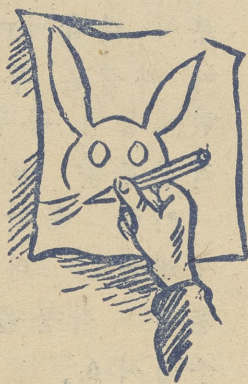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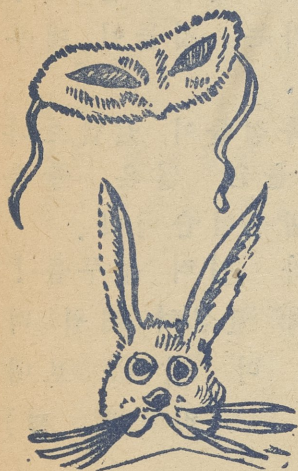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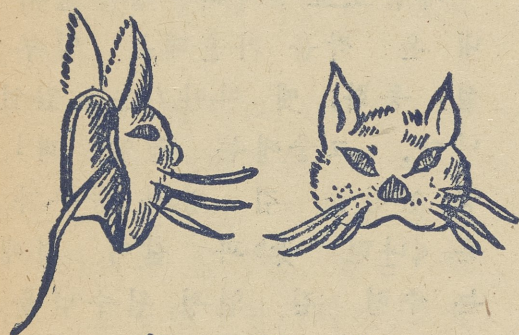
하고 보는 것 느끼는 것 가운데서 알맹이를 추리지 않고 모주리 적어 나갔기 때문에 상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황남 연안 인민 학교 최 재근 동무는 《조국 애》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은 동요 제목으로서는 너무나 크고 막연한 제목이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동무들이 보내 온 작품 가운데는 일부 소설, 동화, 옛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평양 제1 녀중 인민반 김 경자 동무가 지은 《나리 꽃》과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소년단원의 생활을 우수하게 묘사한 작품도 있었으나, 다른 작품들은 아직 많은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소설과 동화, 우화들은 흔히 이야기가 비슷한 것들이 많았고 이야기 줄거리를 너무 쉽게 엮어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 였습니다.

이 와같은 부족점들이 있었으나 한해동안 동무들은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린 문학가 여러 동무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배워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요. (리 배 형)

설날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들은 설날이 가까와 오면 설 맞이 소나무를 준비하며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지요.

또 그뿐인가요. 어느 반이 설맞이 놀이에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나가겠는가 하고 궁리하지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춤추며 나가는 반도 있을 것이고 가면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장하고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반도 있을 테지요.

그러면 가면을 어떻게 만들가요?

먼저 간단히 만드는 법부터 말합시다.

무엇을 만들어 볼가요? 토끼의 가면을 한번 만들어 보지요.

딴딴한 종이나 마분지와 화구가 있으면 됩니다.

딴딴한 종이가 없으면 엷은

종이를 몇겹풀로 붙여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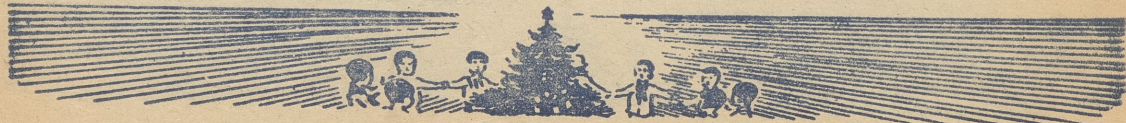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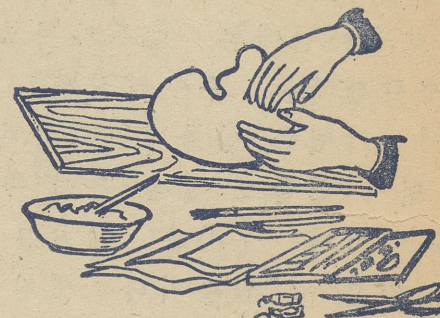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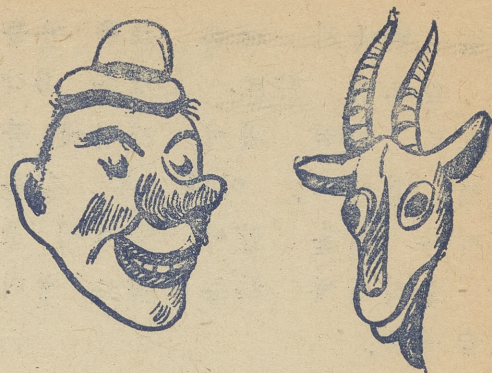
이런 딴딴한 종이가 마련되면 종이 우에다 토끼의 얼굴을 그린 다음 눈, 입, 코를 구멍을 뚫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귀는 떨어지거나 접히지 않게 안쪽에 두터운 종이를 붙여 받치거나 가는 쇠줄을 꿰매여 받쳐야 좋습니다. 수염은 종이를 한번 바른 가는 쇠줄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름답게 색칠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물'감이나 화구로 색을 칠하십시오. 토끼의 가면이 다 되였습니다.

토끼의 가면을 쓰고 흰 천 조박으로 토끼의 발 모양을 한 버선을 만들어 발에 신고 손에 끼우고 짧막한 꼬리를 만들어 달아 보시요. 네발로 깡충깡충 뛰여 보시요.

얼마나 훌륭한 토끼입니까!

이런 가면을 준비할 때에는 자기가 읽은 책 가운데 나오는 사람 (할아버지, 사냥'군 할머니등)이나 동물들에서 고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가면을 만들 때,

만일 삐죽히 나온 코를 만들고 싶으면 따로 그것을 3각형으로 오려 내여 가면에 붙이면 됩니다. 이때 혹 김을 뽑거나 실을 잡아 당겨서 코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재미 있습니다.

× ×

이번에는 좀 복잡한 가면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진짜 모양을 한 가면입니다.

(도두라진데는 도두라지고 우무러진데는 우무러지게)

이 가면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먼저 만들고 싶은 가면(우습광스럽거나 무서운 얼굴일 수도 있고 길'짐승이나 새의 머리일 수도 있다)의 모형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야 합니다.

다 만들어진 가면의 모형을 나무 판 우에 놓고 종이를 붙입니다. 이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엷은 종이 조각들을 물에 추겨서 모형에다 바릅니다. 모형의 전 표면이 잘 가리우도록 들뜨지 않게 팍 발라야 합니다. 이 종이는 신문지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한벌 바른 다음 그 우에다 묽은 풀을 바르고 물에 추기지 않은 종이 조각들을 다시 한번 바릅니다.

이와 같이 풀로 종이 조각들을 대여섯겹 바릅니다.

풀칠이 잘 마른 다음 가면을 벗겨 내서 빼빠로 곱게 다스리고 눈과 입 구멍을 뚫고 그 다음 색칠을 하면 다 됩니다. 끈을 달아서 머리에 써 보시요.

딴딴한 종이로 만든 가면보다 얼마나 훌륭한 가면입니까!

이 밖에도 여러가지 가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 닭, 나비 등 가면 만들기도 생각해내여 만들어 보십시요.

이리하여 설맞이 놀이를 잘 해 봅시다.

※ 10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

해 답

1. 9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2. 열성자 표식을 오른쪽에 달았습니다.
3. 소년단 휘장을 오른쪽에 달았습니다.
4. 열성자 표식에 붉은줄 네개는 규정에 위반됩니다.
5. 9월인데 동복과 털모자를 썼습니다.
6. 자동차들이 좌측 통행을 합니다.

당선자

11월 20일 현재 접수건수 396건중에서 20명을 당선시켰습니다.

함 북	웅기군 제1 중학교 (인민반)	차 해 일
함 북	경흥군 제2 인민 학교	조 영 금
함 남	영흥군 영흥 인민 학교	서 창 오
함 남	함주군 천길 인민 학교	정 부 훈
평 북	청성군 청수 인민 학교	박 찬 도
평 북	의주군 미송 인민 학교	김 치 민
평 남	온천군 신령 인민 학교	강 영 애
평 남	북창군 북창 인민 학교	오 승 규
황 북	은파군 묘성 인민 학교	장 여 택
황 남	제1 초등 학원	김 홍 권
자강도	희천군 제1 인민 학교	조 병 순
자강도	전천군 장림 인민 학교	김 남 일
강원도	고성군 온정 인민 학교	리 항 구
량강도	보천군 중흥 제1인민학교	리 춘 일
량강도	갑산군 동정 인민 학교	김 길 진
개성시	제2중학교 (인민반)	조 정 일
평 양	제35 인민 학교	김 창 일
평 양	국립 곡예 극장	김 순 옥
동 북	료령성 료령 초등 학원	로 영 옥
동 북	길림시 조선인 유자녀 학원	최 병 기

— 내용 삽화. 컷…림영환. 리순수 앞표지 …『로력영웅과 소년단원들』 김창규 촬영

※정정—11호 11페지 사진설명중 „가가" 는 „작가" 이며 현상문제 그림중 „외" 는 „위" 이다

편집 위원 —김 수 현 (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온

1955년 12월 5일 인쇄
1955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소 민주 청년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년 제12호 (총75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224 값 25원 발행 부수 52,000부

"소년단"은 동무들의 참다운 벗!